UCS University

[Speaker 1]

그냥 인터뷰를 한 번씩, 개인 히스토리, 역사, 한국부터 말씀해 주셔도 돼요. 아버지 태어난 곳. 아버지 태어나신 곳.

나?

[Speaker 2]

평안북도 영천군에.

[Speaker 1]

평양. 양북도.

[Speaker 2]

북도. 이쁘게요.

[Speaker 1]

할머니도.

[Speaker 3]

그런데 여기서 처음 만나신 거예요? 네. 두 분 다 북한에서 오셨어요.

남한에 언제 오신 거예요?

[Speaker 1]

6.25때. 6.25때. 참전. 군인으로 오셨다가 전쟁 끝나고 6.25때하고 민군은 젊은이들하고 복귀하고 잡아갔다고.

[Speaker 2]

숨어있었어요. 산에 들어가서 숨어있고 그러다가 그해 50년도 10월달에 북진했잖아요. 유엔군하고 한국군.

한국군이 평양에 7사단이 와서 모병을 했다고. 아. 그러니까 인민문 안가려고 했는데 북군 가자고 해서 거기서 현지입대 한 거예요.

[Speaker 3]

아. 그래서 현지입대 하셔서 그 다음에 한국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Speaker 2]

그런데 우리를 왜 모집했냐면 3개월 교육받고 인문군 교육을 받았어 우리는. 들어가자마자.

[Speaker 3]

인문군. 국군에서.

[Speaker 2]

HID로 해서 거기에 침투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정보 수집하는 거. 할머니, 처녀 우리 젊은 사람 50명 이렇게 모집했어요. 그런데 거기 3개월 전에 중국군이 나오는 바람에 무산이 돼버렸다고.

그래서 그냥 후퇴소해서 여기로 나온 거예요. 남한으로.

[Speaker 3]

그럼 그때가 연세가 몇 살? 나이가?

[Speaker 5]

20살.

[Speaker 3]

그러면 한국에는 혼자, 남한에는 혼자 오신 거예요?

[Speaker 1]

혼자. 아버지 남한에 혼자 계셨죠?

[Speaker 4]

네.

[Speaker 1]

거기서 결혼하시고 자식 낳고.

[Speaker 2]

가족의 형제들하고 아버님은 계셨는데 생사를 모르죠. 다 돌아가셨어요.

[Speaker 3]

형제가 어떻게 되셨어요?

[Speaker 2]

형제가? 5남매.

[Speaker 3]

몇째세요?

[Speaker 2]

남자가 셋.

[Speaker 3]

누나가 둘.

[Speaker 2]

내 밑에 동생이 하나 있어요. 그때 같이 숨어있었는데 군대 간다 보니까 우리 아버님이 하나는 남으라고 그래서 동생이 낳았고 내가 낳았어.

[Speaker 1]

그럼 한국 오셔서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버지가 한국에서 생활을 어떻게 하셨는지 내가?

[Speaker 2]

군대에서 5년 했어요. 5년 동안.

[Speaker 1]

중사 제대하셔서 내가 히스토리 너무 잘하네. 아버지 목소리가 들어가야지. 괜찮아요.

제가 리코딩 때문에 하는 거니까.

[Speaker 2]

5년을 했는데 휴전 되고 나서도 제대를 안 시켰다고. 그런데 5년 후에 제대하고 나왔어요.

[Speaker 1]

결혼하시고 미군부대 들어가셔서 미군부대에서 해외를 많이 다니셨대요.

[Speaker 2]

월남전쟁을 하셨고 서울 삼각지에 미군부대 있잖아요. 거기에 한 7년 되다가 월남전쟁이 있었잖아요.

[Speaker 3]

월남전쟁 다녀오셨어요?

[Speaker 2]

싸우러 가고 우리는 기술자로 가서 무슨 일 하시는 거예요?

[Speaker 3]

탱크 수리공 탱크 수리공 그러면 실제로 전쟁에는 안 가시고 그래도 한국도 하시고 탱크 탱크 굳히시고 아프리카 비엔나전쟁도 갔고 군부대에서 탱크 수리공 기술자로 갔어요.

[Speaker 2]

3년 있다가 한국으로 몇 년 팔굴에 다니다가 사우디에 갔어요. 사우디아라며 진짜 많이 다니셨네요.

[Speaker 1]

아파트 짓고 2차 5.25 77년인가 73년인가 저도 어렸을 때 국민학교 사우디에 가셨던 분들이 많아요. 많았어요.

[Speaker 2]

여기 로켓 항공회사 있잖아요. 로켓 로켓은 항공 그 회사에서 사우디 공군을 훈련시켰다고 미국 영국 정사들이 와가지고 숙소 관리해줬어요. 거기 가서 우리는 발전기 발전기 돌리고 그랬다고 8년 있다가 사우디에서도 8년 계셨어요.

[Speaker 3]

중간에 한국으로 왔다 갔다 하셨어요? 1년에 한 분이 휴가 가족분들은 같이 가신 거예요?

[Speaker 2]

혼자 가족은 여기 한국에 내가 휴가 나왔지.

[Speaker 1]

그렇게 8년을 네. 힘드셨겠다. 저는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Speaker 3]

그리고 그때 8년 있다가 오셨을 때가 연세가 어떻게 되셨을까요?

[Speaker 2]

올 때가 대충 한 77년도에 갔거든요. 그래서 85년도에 오셨어요. 85년인가 그때가 그때가 내가 갈 때 마흔여섯이었다고 50대 54일 그러니까 50이 넘어서 왔지.

[Speaker 1]

50 넘어서 오신거죠. 왔는데 애들이 다 컸지. 아들이었으니까 대학생, 직장 다니고 고등학생 자재분이 몇?

아들이 4남매 아들, 아들, 딸, 딸 있으세요? 아들, 아들, 딸 아들 둘, 딸둘 둘 둘 저는 아들밖에 없거든요. 좋지.

[Speaker 2]

딸도 하나 대신 한국에 살고 여기 우리 큰애만 여기 왔다고 그래서 내가 여기 온거야.

[Speaker 1]

큰아들분은 여기 그냥 유학 오신거에요? 아니면 직장?

[Speaker 2]

아니, 여기 유학이 아니라 여기에 우리 친구가 한국에서 선대 다녔대.

[Speaker 1]

미국 여기 너무 오고 싶어가지고 그냥 왔대. 성인으로.

[Speaker 2]

아, 그냥 가족이라고 결혼은 안하고 총각때 내 친구가 이북에서 같이 나온 친구가 74년도에 미국에 왔다고 이민을 왔어요. 그래서 다운타운에서 봉지옹장을 한 25년 했어. 그래서 그 친구가 친구의 아들이 한국에 놀러와가지고 미국이 좋다고 하니까 같이 온거야?

와가지고 영주권 받고 그래서 그리고 결혼해서 애기 낳고, 애기와서 봐주셨대.

[Speaker 1]

아들, 애기.

[Speaker 2]

아버지가 애들 봐주기가 그때는 엄마도 있었고 아버님도 계셨고 아니, 근데 94년도에 와서 여기서 우리 집사람이 살아있을때 와서 애 낳고 그래서 1년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여기에 그냥 있으라고 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미국 싫다고 가자고 해서 한국에 가서 우리 집사람이 결혼하고 나서 여기 왔다고 오라고 해서 왔는데 우리 애하고 애들 엄마하고 이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애가 영원한거 딴 나름도 슬슬 넣고 이혼했는데 원래는 여기에 엄마가 여유한계권이 있잖아.

우선권이 있잖아. 근데 못 키운다는 걸 키운다.

[Speaker 1]

포기하고 그냥.

[Speaker 2]

못 키운다는 걸 키운다고 해서 우리가 맡았다고. 그럼 누가 있어? 밥 하나 할머니 하나 그래서 애들 조금씩 크니까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유치원에서 졸업하고 국민학교, 중학교 다 내가 했어.

어머.

[Speaker 1]

너무 예쁘시겠다. 너무 효자들이야. 큰 손자가 비행기 운전수야.

조종사 파일럿이야. 멀리 갔다가 오면 꼭 할아버지 모시고 식사하고 애들이 잘해. 할아버지한테.

[Speaker 3]

같이 키우셨으면 진짜 예쁘시겠네.

[Speaker 1]

이미 다 컸어요. 둘은 결혼했고 막내가 미국 시청단인가봐.

[Speaker 2]

LA 시청단 뉴욕에 복무원 뉴욕에 캘리포니아 복무원 딸내미는 UCLA 직원으로 거기서 일하고 있고 둘은 결혼했고 하나는 막내만 우리 할아버지는 너무 행복하신 분이지.

[Speaker 1]

그리고 자비적이시고 너무 건강하세요. 면세 듣고 깜짝 놀랐어요. 건강하시죠?

[Speaker 3]

진짜 건강하세요.

[Speaker 1]

아버지 건강하시다고. 자세도 다르죠. 그리고 말씀도 되게 반듯하시고 한 두 달 전에 좀 편찮으셨어.

그러고 나서는 기운이 좀 없으신 것 같은데 그래도 컸더네. 운동도 많이 하시고 잘 잡숫고 그 다음 히스토리가 할아버지가 여기서 혼자 사셨어. 코로나라는 게 왔지 않냐.

그쵸. 아버지는 센터 가는 걸 싫어하셨어. 안 다니신다고 그래.

아무래도 외롭고 친구가 있으면 좋으니까 어떻게 나가시게 됐어. 그런데 우리 본사님이 같은 학교 학생인데 센터지. 센터지.

바로 시아버지가 다니시거든요. 저희 시아버지가 열심히 다니시거든요. 그런데 어디 다니시는지 모르겠어요.

최근에 어디 바꾸셨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 본사님이 여자친구라고 소개해도 누구의 여자친구? 한 분의 여자친구.

[Speaker 5]

그럼 친구지 뭐.

[Speaker 1]

너무너무 잘하셔. 너무너무 나눠주고 아버지도 너무 맨날 고마워하고 감사해하고 혼자 계시니까 너무 잘하셔.

[Speaker 2]

그래서 내가 본사님 지팽이야.

[Speaker 1]

제가 잘 걷지를 못해요. 우리 본사님 연세는 93세. 네?

진짜요?

[Speaker 3]

95, 93.

[Speaker 1]

나보다 두 살 위예요. 진짜요? 저희 시어머니보다 젊으신 것 같아요.

사고가 너무 젊으시고.

[Speaker 3]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세요 두 분 다.

[Speaker 1]

저희 시어머니가 지금 80 안되셨죠. 70대 후반이신데 훨씬 정정하세요. 진짜로.

믿을 수 없고 멋쟁이시고. 여기 사세요? 우리 아파트 여기 1층.

1층에 있어요. 그때 슬쩍 이모가 말씀해 주신 게 음식 픽업하다 만나셨다고. 맞아요?

맞아요. 음식 픽업하다가 만나서 고향분이라고 해서 2년이 돼서 친구가 되셨는데 우리 본사님은 아르헨티나에서 이민하신 분이야. 한국에서 아르헨티나로 이민 갔다가 거기에서 또 여기로 이민 오신 거야.

그럼 아르헨티나는 어떻게 가시게 된 거예요? 아르헨티나는 해 타고 두 달. 몇 년도에 가셨어요?

65년도. 60년 넘어서 70년 넘어서. 남편이 서울대 교수님이셨는데 그리고 세계를 다 찾아보고 그 때는 거기가 좋아가지고 거기를 선택을 하셨고.

[Speaker 3]

65년도 때면 거의 해외여행 같은 건 아예 못할 때 잖아요.

[Speaker 1]

못할 때죠. 그런데 두 달 동안 대서양, 인도양 다 건넜으니까 배만 배에서 쭉 가는 거예요.

[Speaker 3]

두 달을.

[Speaker 1]

아기들은 사남매? 사남매.

[Speaker 3]

여기는 사남매 맞나?

[Speaker 1]

사남매 맞죠. 다 아르헨티나에 있어요. 그럼 아이들은 자식분들은 다 아르헨티나에 계시고 아빠는 일찍 돌아가시고 내가 45살 때 혼자 너무 아프고 그렇게 예쁜 샥시를 듣고 싶어요.

그때는 그때는 샥시지. 어쨌든. 내 운명이지 뭐.

[Speaker 3]

그럼 아르헨티나에서 돌아가시고 미국에는 어떻게? 아르헨티나는 그냥 할아버지가 오고 싶어서 오신 거예요?

[Speaker 1]

내가 가고 싶어서 왔어.

[Speaker 3]

왜 오십니까?

[Speaker 1]

우리 어머니가 가시기 때문에 내가 딸이 하나거든. 어머님이 나 안 가면은 미국에는 안 가겠다고 어떤 어머니? 친정어머니.

그때 젊을 때 말씀하시는 거죠. 한국에서 혼자 외동딸이시고 근데 같이 가자고 하셨구나. 그렇죠.

그래서 그냥 움직이기도 했죠. 근데 왜 아르헨티나였어요? 다른 데가?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는 우리 아빠 친구가 여행하면서 김이별 교수라고 외국어 대학 교수였다고 여행하면서 아르헨티나가 너무 아름답다고 우리가 미국으로 가려고 했는데 아르헨티나가 너무 좋은 나라라고 소개해서 거기로 갔죠. 그러면 거기서는 어떤 일 하셨는지?

마켓 한 10년 한국 마켓 같은 거요? 그러니까 뭐 고기마켓이요. 고기마켓이요?

그때는 한국분들이 정말 많지 않았어요? 없었죠. 제가 대척자니까.

그래서 거기서 병원도 세우고 어머 스페인어 학원도 하고 대사관에 대사관에 그냥 내 집 두나들었죠.

[Speaker 3]

미국은 어떻게 오셨어요?

[Speaker 1]

미국은 친구가 있어요. 우리 소곤사라고 친구는 이렇게 왔는데 나를 위해서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게 됐는데 그렇게 돼서 왔어요.

애들도 여기 왔다가 여기 싫다고 갔어. 아르헨티나로 여기 미국에 오신지 몇 년 되셨죠? 2002년도에 왔어요.

2024년 세월이 빨라요. 저거 부치 아르헨티나에서 얻고 좋은 거예요. 자기가 얻고 좋게 우리 며느리가 며느리가 보내왔는데 제가 며느리가 다 외국에서 그래요.

그러면 대화는? 대화는 스페인어에요. 스페인어 잘하세요?

스페인어 학원도 있습니다.

[Speaker 3]

여기 스페인어 배우세요?

[Speaker 1]

자신 없어 하지만 배우거든요. 아니 랭귀지는 배워야죠. 그게 힘이에요 사실.

[Speaker 5]

그게 재산이지.

[Speaker 1]

외국에 살면서 외국을 모르면 답답하지. 특히 제가 병원에 UCLA 병원 다니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야. 한국말은 이렇게 지금 하민이가 스페인시를 나는 스페인시를 더 잘한대.

미국에서 낳아서 자랐대. 부모도 한국 사람이고 한국말은 듣기는 하는데 어려운 말은 잘 못하는거야. 스페인시는 한대.

스페인시를 더 잘한대. 그러면 그래서 우리 큰애가 1차에 이민자에 의과대학에 1차로 나왔어요. 의과 공부해서 그래서 의사 자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병원을 지었지. 왜 그러냐. 동포들이 아르헨티나에 와서 외국에 그분들한테 신세지는 게 말도 안동하지.

그러니까 자꾸 많이 배워달라고 내가 계속 자니까 그때는 이민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르헨티나에 하나 들어오는데 한 5만이 들어왔어. 많다.

학원도 하고 말도 배워주고 멋있네 할머니야. 그리고 또 많은 분들 오면 비행장에 나가서 도와드려줘. 애들도 학교 가면 학교도 가볍게 운동도 하지.

병원에 가면 병원에 가서 시중하지. 제가 할 일이 너무 많죠.

[Speaker 3]

그런데 사실 꼭 그래야 되는건 아닌데 하시는거잖아요.

[Speaker 1]

해야죠. 할 사람이 없는데.

[Speaker 3]

제가 왜 깜짝 놀랐냐면 제가 이제 48이 됐거든요. 저는 항상 뭘 새로 하기에는 늦은 나이 같은 거예요.

[Speaker 1]

그런데 지금 그 나이 때 그런거 다 하시는 거잖아요.

[Speaker 3]

그러니까요.

[Speaker 1]

그런데 그 후에도 그렇게 다 모르는 나라에서 사실 언어를 배우셨지만 그게 완벽하지. 한국말처럼 편하지는 않았어요. 노력을 하신 거죠.

마켓 할 때도 한국어, 스페인어로 다 해야 하니까요. 원주민 상대니까요. 말 공부해서 많이 배웠죠.

미국이랑 아르헨티나 비교하면 어떤 것 같으세요? 제가 지났는데 애들은 다 결혼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나 빼고 내 인생이 있지.

아이돌이 있는 데서 있으면 좋지만 저 혼자 살고 싶어서 나왔지. 자유. 자유가 필요하니까.

아버지는 어떠세요? 만약에 아버지가 한국에 계시다고 생각했을 때 미국하고 한국하고 맨날 뉴스 보니까 여기가 좋지만 너희들은 여기가 좋아요.

[Speaker 2]

여기가요?

[Speaker 1]

나도 너인데 내가 여기가 너무 좋아. 내가 한국에 있었으면 어쩔 뻔했나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럼 미국이랑 이민 어떻게 질문해야 할까요?

[Speaker 3]

질문 있으신가요?

[Speaker 4]

질문 안 하셨나요?

[Speaker 3]

저희가 아까 이민이 어떻게 왔는지 질문이 뭐였나요?

[Speaker 1]

이민이 어떻게 왔는지 아파트도 얼마나 좋아요. 정부에서 돈 주죠. 혜택이 너무 많은 거야.

부족함이 없어요. 편하니까 좋은 거지. 네.

[Speaker 2]

할아버지도 나는 애들 때문에 그렇게 시작을 했으니까 못 가고 있다. 애들 키워야 되잖아. 우리가 혼자서 나가야 되니까 내가 없으면 못 키웠다고.

[Speaker 1]

시작은 그렇게 했는데 미국에 시민이 되신 거야. 투팍 범죄자들. 두 분은 만약에 지금 다시 한국 가서 살까?

하면 가실까요? 아니면 아르헨티나 다시 가족, 애들이 오라고 해도 안 가실 것 같아요?

[Speaker 2]

자유로운.

[Speaker 1]

다니러는 가지만 살면 애들 보고 아버지는? 한국 가서 막내딸이 아버지 저하고 살아요. 오세요.

그러면 가셔?

[Speaker 2]

아니. 다니러 가는 거 말고 아주 살러. 살러?

큰딸이 오라고 그러는 거지. 맨날.

[Speaker 1]

그러면 가시고 싶어?

[Speaker 2]

아니요.

[Speaker 1]

혼자 사는 게 제일 좋아. 혼자 사시는 게. 아들보다 다 좋지만 나는 나야.

굉장히 독립적이세요. 그렇죠. 젊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나 똑같아.

싫어하는 게 아니고 싫어하는 게 아니고 자유를 주는 거지. 서로 자유롭게 사는 거지. 근데 젊은이들은 오해를 해요.

이 젊은이가 아니라 거이가. 왜냐하면 어른을 못 모시는 거에 대한 부담도 느끼고 내가 할 일이 못하나. 이런 거 있잖아.

근데 아니거든. 내가 잘 살면 된다야. 나만도 그래 봤어.

진짜로. 전혀 아닌데 잘못. 그렇게 자식에 대한 돌이 특히 한국 사람은 그런 게 있는지 그러는 것 같더라고.

난 너무 좋아.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지금 시간되면 뭐 티라도 한 잔.

[Speaker 3]

아니요. 요구르트도 마시고 왔고요.

[Speaker 1]

저 애기는 뭐든지 안 먹어서. 얘는 원래 뭘 잘 모르고. 나성 돈가스나서 돈가스 먹고 괜찮아요.

[Speaker 4]

다 먹었어요.

[Speaker 1]

아까 밥 먹다가 말고 다 먹었어요. 이만큼 줬어요. 놀래서 먹다 말고 한 시간을 먹었잖아요.

아버지. 너무 재능도 좋고 인물도 좋고 음악도 잘해. 플룻을 사랑해요.

학교도 좋은 학교인데 거기서 오케스트라 반에 들어가야지.

[Speaker 2]

아주 이지적으로 생겼네.

[Speaker 5]

아들만둔이거든요.

[Speaker 1]

막내 작은 애는 완전히 연예인 같았어요. 한국 분이지만 너무 아주 스마트해서 저는 정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내가 돈을 받고 일을 하지만 이 집에서도 나를 돈을 주고 일을 시키지만 서로가 서로가 내가 많이 부족해도 불평을 안해요.

정말 감사하죠. 내가 늘 부족한 것 같아도 말을 안하니까 말할 것도 없죠. 항상 그런 마음으로 감사하게 생각해요.

서로가 행복한거죠. 맞아요.

[Speaker 3]

이모도 행복하면 다행일거에요.

[Speaker 1]

행복하고 미안하기만 하지. 멀쩡한 애들은 써도 되는데 무슨 말이나 하던데. 저희 남편은 맨날 이모 건강하셔야 되는데 오래오래 같이 아빠도 너무 스윗하시구요.

저희 남편이 이불 너무 좋아해요. 없어요.

[Speaker 5]

맞아요.

[Speaker 1]

온 가족이 다 좋아해요. 한국에선 한국이지. 진짜 그래요.

진짜 너무 죄송하고 감사하고.

[Speaker 5]

차 한잔 하실래요?

[Speaker 1]

아들이 LA LA 컨저먼스라는 단체가 있어요. 그 단체가 LA 곳곳에 오래된 역사적인 건물들이 있잖아요. 유명한거 아니더라도 누군의 고전가옥 같은거 말하죠.

[Speaker 3]

고전가옥. 딱 그거에요.

[Speaker 1]

그거를 옹호하는 단체에요. 만약에 디벨로퍼들 이런 사람들이 그거 사가지고 헐어버리고 패팅 질려고 할 때 못하게 대회하고 그거 지켜내고 이런거 하는 랜드마크로 딱 지정을 하면 못 부수게 하는 도전해야 되는 그런 운동을 하는 데서 얘가 리더쉽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하이스쿨 학생들 단체에서 한 10-15명?

인턴.

[Speaker 4]

무슨 거? 15명? 미러스?

하이스쿨만?

[Speaker 3]

I don't know. How many? 9-12?

[Speaker 4]

사람들이? Yes.

[Speaker 1]

한 15명 정도 매년 여름에 뽑아서 거기에 뽑혔어?

[Speaker 3]

작년에. 점심도 주고 돈도 좀 주고 장학금처럼 온갖 LA의 도시를 다니면서 보존해야 될 것을 설명해주고 다절스 스태디움 있잖아요. LA 다절스.

[Speaker 1]

그거 다 사람들이 좋아하지만 만들기 위해서 거기 살던